

# 전기차 공급량 늘려야



김필수의  
차 이야기

새해 시작부터 전기차 물량이 벌써 동났다.

올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예산 확보 대수가 약 2만대 수준에 그치면서 1월도 채가기 전에 올해 확보된 예산이 동이 났다. 이는 이미 예고된 수치다.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 물량 1만 4000대의 예산이 예정대로 집행되면서 전기차의 돌풍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이 정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예상 전기차 대수를 확인한 결과 5만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신청한 전기차 신청 지자체 수는 약 30군데 이었으나 올해는 100군데로 늘어났다. 올해 판매 될 전기자동차의 폭발적인 인기를 고려해 예상 보조금을 크게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올해는 '전기차의 빅뱅'의 시작을 알리는 해이다. 한번 충전하여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보편적으로 300km 이상 가는 차량이 많아지고, 항상 불편하게 느끼는 충전소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단점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국가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가성비를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작년 중앙정부 보조금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고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 더욱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만 이 정도는 아주 괜찮은 보조금인 만큼 올해가 구입하기 최적이다. 또한 선진국이나 중국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전기차 활성화나 정책, 기술적인 측면이 뒤지는 만큼 전기차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같은 분위기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다면 다시는 이러한 좋은 기회는 얻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시점에 대한 몇 가지 고민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현대차 코나 전기차, 아이오닉 전기차, 한국지엠의 쉐보레 볼트, 기아 니로 전기차, 닛산 신형 리프, BMW i3 등 더욱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둘째로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미 선진국 중 보조금이 없는 국가도 있고 크게 줄이는 국가도 상당수라 할 수 있다. 이 보조금을 전기차 관련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줄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 만큼 급격하게 줄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한 국형 전기차 보급모델 고수를 통해 더욱 전기차 시대로 돌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셋째로 올해 시작한 초소형 1~2인승 전기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경우 578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시작한 만큼 일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줄이지 말라는 것이다. 일반 전기자동차 보급보다 훨씬 늦게 이제 시작이고 중소기업의 먹거리인 만큼 보조금 유지는 더욱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넷째로 전기자동차의 흐름을 이어주기 위한 후속 조치도 확실히 필요하다. 공공용 민간용 구분 없는 충전기 관리 비용 예산 책정과 실시간 관리, 다양한 충전기 타입에 따른 전기차 운전자를 위한 충전기 안내 내비와 통합 컨트롤 센터 구축, 도심지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고려한 공용 주차장 충전기 시스템 구축, 전기차 애프터마켓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양성 등 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폭발적인 전기차를 위한 움직임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보다 한 걸음 앞선 전략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전기차에서 찾았으면 한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한화, 국립맹학교서 찾아가는 불꽃클래스 개최**  
한화그룹은 7일 서울국립맹학교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불꽃클래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불꽃클래스는 한화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모두 하나 되어 만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진행하는 올림픽 홍보 프로그램이다. /한화그룹

##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 쌀 6000포대 기부

설 앞두고 소외계층 위해 나눔 펼쳐



에이스침대는 안유수 회장(사진)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에이스경암이 설 명절을 맞아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정을 위해 1억2000만원 상당의 백미 10kg짜리 5942포를 경기 성남시와 이천시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기증한 백미는 성남시 관내 총 4492세대와 이천시 1450세대 등 총 5942 세대에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안 이사장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1999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설과 추석 명절에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 백미를 기증해 왔다.

또, 지난 25년간 불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및 경로당도 운영하며 소외받고 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수소전기차 성공하려면



기지 수첩  
양성운 (산업부)

현대자동차그룹은 막대한 R&D 비용을 투자하며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주도권을 선전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힘겨운 모습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3년 수소차 투싼ix 35를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2018'에서 넥쏘의 차명과 제원, 주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의 넥쏘는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수소전기차는 국내 시장에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다.

수소차는 현대차가 가장 먼저 선보였다. 이후 일본 도요타와 혼다 등이 개발에 성공하며 생산하고 있다. 단순히 생산 시점만 보더라도 현대차가 공공적으로 친환경차·수소차 개발에서 앞서고 있다. 하지만 판매량을 보면 일본 도요타는 누적판매 4000대가 넘었다. 반면 현대차는 890여대에 불과하다.

도요타와 혼다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수소차 보급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수소전기차를 4만대로 늘리고 충전소 설치비용과 운영 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9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후발주자인 중국의 경우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정책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1000개 이상 충전소를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42개의 충전소를 가동중인 독일은 2023년까지 4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차 충전소

는 전국에 12곳에 불과하다.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7곳 뿐이다.

지난달 1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현대차 연구소를 방문했을 당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충전소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수소차 분야는 정부에서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자율주행 등 미래차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발표에서 수소차는 빠져 있다. 전기차 중심의 투자 계획만 내놓은 것이다.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지만 위태로운 모습이다.

아직까지 수소차 경쟁력에서 현대차가 앞서고 있지만 주도권을 빼앗기는 건 한 순간이다. 도요타와 혼다의 경쟁, 중국과 독일 등 후발주자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ysw@metroseoul.co.kr



**귀뚜라미, 러 냉난방전시회 10년째 참가**  
귀뚜라미는 오는 9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쿠스 엑스포에서 열리는 제22회 국제 냉난방 설비 전시회 '아쿠아 섬 모스크바 2018'에 10년 연속 참가했다고 7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전 세계적인 대기오염 감축 노력과 친환경 보일러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대기오염 감축 효과가 우수한 주력제품 12종을 전시하고, 현지 거처 확보와 마케팅에 나선다. 지난해 참가 당시의 부스 전경. /귀뚜라미



**DB손보, 베트남 자회사 PTI와 나눔봉사 실천**  
DB손해보험과 베트남 PTI 보험사 임직원, DB김준기문화재단 장학생 봉사단 '동해리' 봉사자들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베트남 북부 닌빈지역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DB손보가 7일 밝혔다. DB손보 봉사단원들이 베트남 현지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후 현지 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보

### 인사

- ◆**법제처** ◇전보(과장급) △법제정책관 법제조정법제관 이영호
- ◆**공정거래위원회** ◇전보(국장급) △공정거래위원회 정진욱 △대변인 윤수현 △기획조정관 김준하 △소비자정책국장 송상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성삼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배영수(과장급)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한경중 △특수거래과장 이상협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오동욱

- ◆**문화재청** ◇전보(과장급) △법무감사담당관 홍창남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임병천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 유재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장 이규식 △과견(국·과장급 교육훈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연수 △세종연구소 김성일 △통일교육원 임종덕
- ◆**주택금융공사** ◇전보(지역본부장) △수도권본부 조현곤 △서남권 김현수(부장) △기획조정실 조진호 △고객만족부 박종철 △준법지원부 광혜일 △정책모기본부 권오훈 △세무회계지원부 이영태 △주택연금부 장우철 △리스크관리부 이규진 △IT전략안전부 이철우 △정보전산부 양기범 △감사실 이진호 △인사부 최혁순 △경영지원부 채석(지사장) △서울중부 오택근 △서울남부 임수현 △부산최상철 △광주 김익수 △대전 김영환 △울산 이휘 △경기중부 김동만 △천안 오상연 △순천 조생현 △경남 정훈모 △제주 조성국 △서울채권 정정일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이현희 △미술관장 윤동천
- ◆**명지대** △사무지원처장 방선오
- ◆**전자신문** ◇승진(편집국) △ICT융합산업총괄

- SW융합산업부 부장 신해권(정보사업국) △사업팀 부장 김정영(광고마케팅국) △마케팅팀 부장 한기웅 ◇보직(편집국) △사진부 부장 윤성혁
- ◆**한국스포츠경제** △편집국엔터산업부장겸뉴미디어본부총괄부장 유아정 △뉴미디어본부디지탈뉴스부장 신화섭

### 부음

- ▲우민규(산림관리사)·상규(진주 이상약국 약사)·인규(전 경향신문 기자)씨 모친상 = 7일, 경북 진주 중앙병원, 발인 9일 오전 7시, 055-745-9555
- ▲정병임씨 별세. 백철현(현대해상 상무)씨 빙모상 = 7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2-3010-2000
- ▲이범규(서울 강동경찰서장)씨 장모상, 이슬기(연합뉴스 기자)씨 외조모상 = 7일 오전 8시, 경북 안동성소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 054-850-8501
- ▲최승정씨 별세. 정경원(한국전자인증 사장)씨 모친상 = 7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02-2258-5940



**메트라이프생명, 재무설계사 육성 강화**  
메트라이프생명은 올해 영업 전략 중 하나인 조직 성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재무설계사 육성 프로그램을 전격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해 신입 재무설계사가 일정 수준의 실적을 유지하면 초기 2년간 월 소득을 300만원 보장해주는 루키(Rookie) 300 프로그램을 도입해 재무설계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집 규  
편집국장 이 집 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